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·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

“풍선 빨간색인데?”

혼자 만든 AI 그림책, 아이가 이렇게 묻기 전에
쪽마다 AI에게 그림과 글을 맞춰 보게 한 이야기

다시 그리는 대신 글을 고쳤더니,
빨간 풍선은 판다 몫이 됐어요.





만드는 것도 저,
확인하는 것도 저

경기도 광주에서 AI 그림책 서비스 「동화모아」를 혼자 합니다. 부모님이 아이 이름이랑 요즘 고민(양치,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)을 적으면 AI가 글이랑 그림으로 한 권을 만들어 줘요. 편집자도, 그림 작가도 없습니다.

10월 초에 첫 화면에 걸어 둘 견본 그림책 9권(오른쪽)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

10쪽 × 9권 = 90쪽

쪽마다 인물·물건·색을 글이랑 맞춰 보는 걸 혼자 매번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. 고치는 방법도 「그림 다시 그리기」 하나뿐이었는데, 다시 그릴 때마다 돈이 들고 새 그림에서 또 다른 흠이 나왔습니다.



다 만들고 나란히 놓고 보니, 글이랑 그림이 딴소리를 했어요



생일 책 · 2쪽 그림

6쪽 글은 「민트색 풍선」인데 2·3쪽 그림 속 풍선만 빨간색



소풍 책 · 7쪽

글은 「아빠와 엄마와 누나」인데 그림에 누나가 없음



동생 맞이 책 · 3쪽

엄마가 아기 대신 작은 고래 인형을 안고 있음

읽어 주면 아이가 바로 “풍선 빨간색인데?” 할 장면들이죠.

일을 셋으로 나눴어요.
만드는 AI, 보는 AI, 정하는 사람

만드는 AI
동화모아 원래 공정 그대로

- OpenAI 언어 모델이 글 초안
- OpenAI 이미지 모델이 쪽마다 그림

→

보는 AI
Claude(Claude Code), 일부러 다른 AI

1. 글의 인물·물건·색이 그림에 있나
2. 그림에만 있는 인물이 있나
3. 대사마다 누가 말했는지 보이나
4. 앞 쪽과 옷·소품·색이 같나
5. 그림 안에 글자·숫자가 있나

→

정하는 사람
저

- 걸린 줄마다 셋 중 하나 **다시 그리기 · 글 고치기 · 그대로 두고 기록**
- AI가 새로 쓴 글은 제가 읽고 승인한 것만

그림을 만든 AI한테 “너 잘 그렸어?” 물어보면 같은 착오를 또 하기 쉬울 것 같아서, 보는 쪽은 다른 AI로 했습니다. 걸린 건 책별 검수 기록에 한 줄씩 남겼어요.

또 그리는 대신,
글이 빨간 풍선을 받아 줬어요

고치기 전



고친 뒤



고치기 전 2쪽 글

“오전, 서준이는 **풍선 끈**을 판다에게 건넸어요.”

색이 없고, 같은 풍선을 6쪽 글은 「민트색 풍선」이라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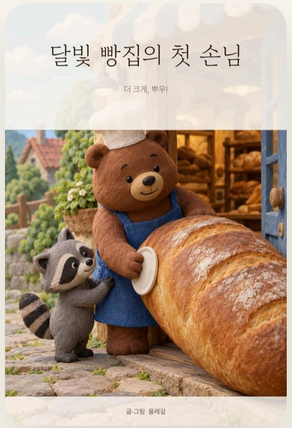
고친 뒤 2쪽 글

“서준이는 **빨간 풍선**을 판다에게 건넸어요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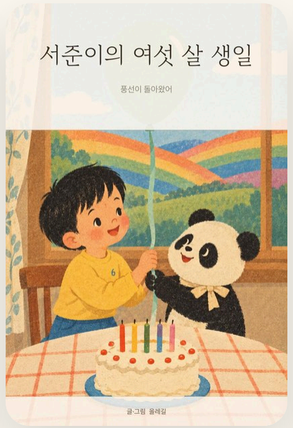
그림 비용 없이 글이랑 그림이 맞게 됐어요.

생일 책은 이미 한 번 다시 그린 책이라 또 그리지 않았습니다. 이제 서준이는 **민트색 풍선**을 받고, 판다한테는 **빨간 풍선**을 건넵니다.

다시 그린다고
꼭 나아지진 않더라고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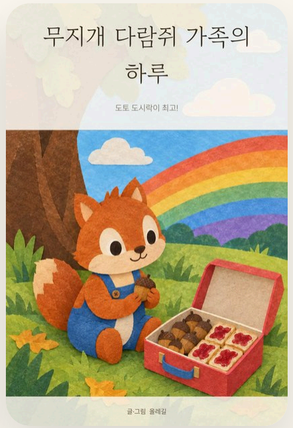
다시 그린 판
빵집 책



다시 그린 판
생일 책



처음 판
부엉이 책



처음 판
소풍 책

> **9권 중 4권은 그림을 한 번 다시 그렸는데,**
> 2권은 다시 그린 쪽을, 2권은 처음 것을 골랐습니다.

부엉이 책은 다시 그린 판이 표지는 깨끗했는데 4쪽이 갑자기 바깥 낮 장면으로 튀어서 처음 판을 썼어요.

소풍 책은 다시 그려도 누나 옷 색이 쪽마다 달랐습니다.

그래서 다시 그리기는 한 번까지만 하고, 나머지는 글을 고쳤습니다.

고친 글이
새 어긋남을 만들기도 했어요



펭귄 책 2쪽 글은 "펭귄이 뒤뚱뒤뚱 앞장섰지요", 그림 속 펭귄은 침대에 가만히



소풍 책 7쪽 "누나도 한 입"으로 바뀠는데 그림엔 여전히 누나가 없음

고친 글도 한 번 더 대조했더니 보였습니다. 이런 건 숨기지 않고 기록에 남겼어요.

책별 검수 기록의 흠 목록 (9권 합계)

31줄 → 16줄

표지 2장 새로 만들고 글 고쳐서 다시 대조한 결과입니다. 16줄엔 고치면서 새로 생긴 것도 들어 있어요.

순서를 바꿨어요.
그림이 먼저, 글은 나중

처음 만든 책에서 「별빛 토끼」라고만 적었더니 쪽마다 다른 색 토끼가 나왔어요. 인물 설명을 그림 요청 앞에 붙였더니 인물은 이어지는데, 이번엔 글이랑 그림이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.

1. **그림이 먼저, 글은 나중**
   그림이 정해진 뒤에 글을 그림에 맞춥니다.

2. **만드는 AI와 보는 AI를 나눈다**
   그림을 만든 AI가 자기 그림을 검사하지 않게요.

3. **「그대로 두고 기록」도 선택지**
   다 고치려 하면 다시 그리기만 반복하게 돼요. 기록해 두면 다음에 뭐부터 고칠지가 남습니다.



10월 6일에 새로 만든 **양치 책**이랑 **어린이집 등원 책**은 처음부터 이 순서로 만들었어요.

아이가 보는 책이라,
미리 정해 둔 선

아이 사진은 안 받습니다

사진 올리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.

AI가 만든 책이라고 적어 둡니다

그림책 화면: “이 그림책의 글과 그림, 읽어주기 음성은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.” 견본 책: “글은 그림에 맞춰 다듬었어요.”

화풍은 보통 이름으로만

수채화, 클레이풍, 콜라주처럼 고르고 작가나 스튜디오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.

입력할 때 미리 알려 주기

실제 이용자가 표현 검사에 다섯 번 거절당한 기록을 보고, 글 쓰는 자리에서 걸릴 만한 표현을 미리 알려 줍니다. 막진 않아요. 마지막 판정은 서버 검사가 합니다. 제가 만든 규칙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.

그림을 읽을 수 있는
채팅 AI 하나면 됩니다

그림 한 장 + 그 쪽 글을 넣고, 그림을 만들 때 쓰지 않은 AI에게

"이 그림에 보이는 인물과 물건, 색을 먼저 모두 적어 줘. 그다음 아래 글에 나오는데 그림에 없는 것, 그림에 있는데 글에 없는 것을 '쪽 / 글 / 그림 / 어긋남' 표로 알려 줘. 확실하지 않으면 '확인 필요'라고 써."

그림부터 적게 하는 건 AI가 글에 끌려서 그림을 대충 읽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.

1. 쪽마다 그림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그 쪽 글을 옆에 둡니다.

2. 앞 쪽 그림도 같이 넣고 옷·소품·색이 달라진 데를 물어보면 더 좋아요.

3. 표의 줄마다 **다시 그리기 · 글 고치기 · 기록하기** 중 하나를 고릅니다.

4. 고친 글도 같은 질문으로 한 번 더. 「확인 필요」 줄은 직접 그림을 열어 봅니다.

선생님 수업 자료, 카드뉴스, 아이한테 만들어 주는 그림책에도 그대로 맞아요. 쪽마다 맞춰 보는 양식은 함께 붙인 파일에 있습니다.

2쪽 풍선은 지금도 빨간색. 바뀐 건 글이에요.